

《삼국연의(三國演義)》 關羽형상의 의미

남덕현*

〈 목 차 〉

1. 머리말
2. 관우형상의 특징
 - 1) 영웅적 모습
 - 2) 신적인 모습
3. 맺음말

1. 머리말

관우숭배문화에서 관우의 신격형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우숭배문화 속의 관우형상은 역사적 인물 관우의 행적에 그 원형이 있지만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상화 되어진 것이다. 민간 문화와 종교영역을 거치며 시대의 상황과 요청에 따라 역사적 실제 모습과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져 갔다. 특히 역사 연의소설 《삼국연의》에 이르러는 역사 속 인물이 문학 예술적 형상화를 이루게 된다. 역사적 진실에 예술적 허구가 서사구조 속에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이상적 관우 인격형상이 창출되어 진다. 동시에 이후 관우숭배문화의 핵심인 관우 신격형상 조성의 단서를 제공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오랜 세월의 공력을 거쳐 역사소설로 완성되어진 《삼국연의》 중 관우와 관련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지난 역사와 문학 속에서 그 원형을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dhnam@pusan.ac.kr)

찾을 수 있다. 삼국의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여 민간신앙과 민간문학을 거쳐 역사문학의 기초 위에 민간 예술인의 가공을 통해 소설 속에서 그 형상이 창출되어졌기 때문이다. 이 소설 속의 문학 예술적 관우형상은 이후 관우숭배문화 속의 신격화된 관우형상의 기본적 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사소설 《삼국연의》 속의 완벽한 이상적 관우형상의 특징을 형식적 면에서 형상 창출을 위해 사용되어진 서사구조와, 내용적 면에서 작가가 추구하고자 한 지향점의 본질을 살펴 관우형상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후 관우숭배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관우형상의 특징

1) 영웅적 모습

역사소설 《삼국연의》에서 관우형상이 지닌 두드러지는 특징은 과거 역사적 행적에 근거하여 영웅적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영웅적 모습은 소설에서 관우 이야기를 서술함에 있어 영웅전기식 서사구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즉 이상적 관우 인물형상은 영웅전기와 같은 서술을 통해 줄거리를 전개하며 형상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웅전기식 서술이란 전체 이야기 줄거리 전개를 통해 역사 속 영웅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에 역사 연의소설 《삼국연의》 속 관우이야기는 역사적 근거와 그 이야기의 원형이 존재하게 된다.

《삼국연의》는 중국의 장편 역사연의소설로서 오랜 기간 축적된 민간 문학적 토대 위에 나관중(羅貫中)의 예술적 완성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주요한 한 특징은 줄곧 촉한(蜀漢)중심의 관점에서 관우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이상적 인물로 창조해나가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삼국연의》에서 관우형상을 창출해가는 이야기 구조를 지닌 부분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는 ‘항조귀한(抗曹歸漢)’ 이야기이다. 이 ‘항조귀한’ 이야기를 살펴

보면, 제25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제28회에까지 이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작은 이야기들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다. 하비(下邳)성을 잃은 부분, 토산에 주둔하며 세 가지 약속을 하는 부분, 쫓불을 잡고 아침을 기다리는 부분, 안량(顔良)과 문추(文醜)을 베어버린 부분, 직위와 재물을 마다하는 부분, 다리에서 이별하는 부분, 주창(周倉) 채양(蔡陽) 이야기 부분,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여섯 장수를 베는 부분, 그리고 고성(固城)에서 뜻을 함께하는 부분 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제28회에서 일단락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의미에 있어서 이 이야기 줄거리의 마지막은 적벽대전 후 관우가 화용도(華容道)에서 조조를 놓아주는 부분에서 끝을 맺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 이야기 전개과정을 통해 관우는 평생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의의 화신으로 그 형상이 드높여져 후일 관우문화 속에서 모든 이로부터 숭배 받고 추존 되는 요인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서 관우의 상징인 의가 완성되어진 것이다. 물론 이 대목의 이야기는 다른 민간문학 작품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관우의 비중이 《삼국연의》에 미치지 못한다.¹⁾ 이 이야기처럼 《삼국연의》는 이상적인 관우형상 창출을 골간으로 소설의 전체 줄거리가 이어지고 있다. 즉 관우이야기를 서술함에 영웅전기를 창작하는 서사구조를 취하면서 역사연의 소설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역사 속 사실을 원형으로 하여 변형하고 보완하며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우형상의 영웅적 모습 창출의 역사적 근거와 그 이야기의 원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관우의 영웅전기적 ‘항조귀한’ 이야기의 핵심 내용인 ‘고성회(固城會)’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를 태동시키게 한 역사속의 근거와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

1) 《三國志平話》(이하 약 《平話》)와 元 雜劇 《關雲長千里獨行》에도 실려 있는데, 두 가지 모두 ‘五關斬將’과 ‘服周倉’의 이야기는 없다. 明 傳奇 《固城記》에서도 이 부분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다. 劉海燕, 《從民間到經典》(上海: 上海三聯書店, 2004), 158쪽, 張志江, 《關公》(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8), 84~85쪽 참조.

羽傳)》을 보면,

건안 5년, 조조가 동쪽 정벌에 나서자 유비는 원소에게로 달려갔다.
조조는 관우를 생포하여 돌아왔다.
(建安五年, 曹公東征, 先主奔袁紹. 曹公禽羽以歸.)²⁾

라고 적혀 있고, 또 《삼국지·선주전(三國志·先主傳)》에도

건안5년, 조조가 동쪽으로 유비를 정벌하자 유비는 대패하였다. 조조
는 그 병력을 다 손에 넣었으며, 유비의 처자식을 포로로 잡고 아울러
관우를 사로잡아 돌아왔다.
(五年, 曹公東征先主, 先主敗績. 曹公盡收其衆, 虜先主妻子, 并禽關羽
以歸.)³⁾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삼국지·무제기일(三國志·武帝紀一)》에도

마침내 조조는 동쪽으로 가서 유비를 공격하여 무찌르고 그 장수 하
후박을 생포하였다. 유비는 원소에게 도망갔고 그 처자를 포로로 잡
았다. 유비의 장수 관우가 하비에 주군하고 있었는데 다시 진격해 공
격하자 관우는 투항하였다. 창희가 배반하여 유비를 도운 적이 있었
기에 또 공격하여 무찔러 버렸다.
(遂東擊備, 破之, 生禽其將夏侯博. 備走奔紹, 獲其妻子. 備將關羽屯下
邳, 復進攻之, 羽降. 昌豨叛爲備, 又攻破之.)⁴⁾

라고 적혀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성되어진 ‘고성회’ 이
야기는 건안 5년 조조가 동쪽으로 유비를 정벌하는 역사적 배경에서 기
인하게 된다. 이 기록들을 볼 때, 관우가 생포된 건지 투항한 건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관우는 조조에게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곤경에 처했던 것이다. 역사서 속의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설에서 작가는 이야기를 파생시켜 만들어 낸 것이다. 즉 관

2) 陳壽 撰, 裴松之 注, 《三國志》(上·下)(長沙: 岳麓書社, 2006), 633쪽.

3) 陳壽, 《三國志》, 앞의 책, 589쪽.

4) 陳壽, 《三國志》, 앞의 책, 14쪽.

우가 조조에게 잡혀있다 조조를 떠나 고성에서 유비, 장비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고성회’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그 원형을 두고 꾸며진 것이다.

(2) ‘항조귀환’ 이야기의 한 전환점이 되는 ‘자안량(刺顔良)’ 이야기도 그러하다. ‘항조귀환’ 이야기의 한 대목으로 《삼국연의》 제25회를 보면 관우가 조조 진영에 머물러 있던 시절 원소(袁紹)의 대장군 안량을 베어 버린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삼국지·무제기일(三國志·武帝紀一)》의

이월, 원소가 곽도 순우경 안량을 보내어 백마에서 동군태수 유연을 치게 했다.

(二月, 紹遣郭圖, 淳于瓊, 顔良攻東郡太守劉延於白馬.)⁵⁾

라는 기록과,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의 기록을 보면

원소가 대장군 안량을 보내어 백마에서 동군태수 유연을 치게 했다. 조조는 장료와 관우를 선봉에 세워 공격하게 했다. 관우는 안량의 깃발과 수레덮개를 멀리 바라보다 말에 채찍질하여 달려 수만의 군사들 속에서 그 목을 베어 돌아왔다. 원소의 장수 가운데 관우를 당해낼 자가 없어 마침내 백마의 포위를 풀었다.

(紹遣大將軍顔良攻郡太守劉延於白馬, 曹公使張遼及羽為先鋒擊之. 羽望見良麾蓋, 策馬刺良於萬眾之中, 斬其首還, 紹諸將莫能當者, 遂解白馬圍. 曹公即表封羽為漢壽亭侯.)⁶⁾

라고 적혀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우가 안량을 참한 사실은 《삼국지(三國志)》 정사에 기록된 관우의 훌륭한 용맹스런 전공이다. 관우는 건안 5년 조조에게 사로잡혀 그의 편장군(偏將軍)이 된다.⁷⁾ 백마전투에 참가해 수만 대군 속에서 적장 안량의 머리를 베어 단숨에 조조의

5) 陳壽, 《三國志》, 앞의 책, 14쪽.

6)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7) 《三國志·關羽傳》: “建安五年, 曹公東征, 先主奔袁紹. 曹公禽羽以歸, 拜為偏將軍.”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인정을 받게 되어 한수정수(漢壽亭侯)에 봉해진다. 정사에 기록된 역사적인 이 사건은 관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삼국연의》 소설에서는 앞뒤 줄거리의 연관성을 위해서, 또한 서사의 생동감과 영웅전기적 서사를 위해 이야기를 충분히 늘여서 서술하였다. 유비가 원소를 충동질하여 조조와 전쟁을 하게 하여 안량이 출정하게 되는 것, 조조가 여러 가지 계산 하에 관우를 출전시키는 것, 관우가 수천수만의 군사 속에서 용맹을 발휘하여 안량의 목을 베는 것, 관우가 동생 장비를 백 만 군사 속에서 적장의 머리 베기를 주머니 속의 물건 취하듯 한다고 칭찬하는 것 등등의 이야기를 더 넣어 흥미와 긴장감을 더해주었던 것이다. 역사원형에 근거해 훨씬 더 멋있는 이야기로 파급시킨 대표적 이야기이다. 《삼국연의》 소설에서 이 이야기에 이어 꾸며져 있는 문추 이야기는 민간문학에서 다뤄지던 내용이 《삼국연의》에 반영되어진 것이다.⁸⁾

(3) ‘토산에 주둔하여 세 가지 일을 약속하다(屯土山約三事)’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 역시 역사 속에 그 이야기를 태동시킨 원형이 있다. 이 이야기는 관우의 역사적 기록에서가 아니고, 관우를 설득한 장료와 관계있는 기록으로 《삼국지·장료전(三國志·張遼傳)》을 보면 알 수 있다. 살펴보면

장료가 하후연과 동해에서 창회를 포위하였다. …… 사람을 보내 창회에게 이르길 : “조공이 명령을 내렸으니 장료가 조공의 뜻을 전할 것이요.” 창회가 과연 내려와 장료와 대화를 나누었다. 장료가 그에게 권했다. “조공은 신과 같은 위엄과 무용을 갖고 있으며 인자한 덕으로 천하를 편안히 다스리고 있소. 먼저 그에게 의탁하는 자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이에 창회는 투항하기로 하였다. 장료는 마침내 단신으로

8) 宋 洪邁《容齋續筆》卷 11《名將晚謬》에 “關羽手殺袁紹二將顏良、文醜于萬衆之中.”라는 기록이 있고(劉海燕, 앞의 책, 161쪽), 《平話》에는 ‘關公刺顏良’이야기에 이어 ‘關公誅文醜’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소가 官渡로 되어 있고, 묘사가 자세하지 않다.(種兆華, 앞의 책, 419쪽) 이후 《三國演義》 소설에서는 장소가 延津으로 바뀌어져 있다.

삼공산에 올라 창희의 집으로 들어가 그 처자를 만났다. 창희는 기뻐하며 그를 따라가 조조를 만났다.
(與夏侯淵圍昌豨于東海, …… 乃使謂豨曰: “公有命, 使遼傳之.” 豨果下與遼語, 遼爲說太祖神武, 方以德懷四方, 先附者受大賞. 豨乃許降. 遼遂單身上三公山, 入豨家, 拜妻子, 豨歡喜, 隨詣太祖.)⁹⁾

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장료가 고립되어 있던 창희(昌豨)를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투항하게 하였다. 비록 그 상황이 관우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지만 《삼국연의》 소설 속 이야기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역사 속에서 장료가 혼자 삼공산(三公山)에 올랐다는 기록이 소설 《삼국연의》 속에서는 혼자 토산에 올랐다는 것으로 살짝 변형되긴 하였지만 아주 흡사하다. 또한 장료가 상대를 설득하여 투항시켰다는 것도 비슷한 점이다. 이런 장료와 창희의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착안하여 관우와 장료의 토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삼약(三約)’을 내세우며 항복하는 줄거리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역사적 원형을 소설에서 바꾸어 이야기로 꾸며내었음을 알 수 있다. 허나 이 ‘삼약’의 내용 부분은 소설에서 지어진 허구로서 민간에 유행하였던 여러 작품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를 《삼국연의》에 반영한 것이다.¹⁰⁾

(4) ‘참채양(斬蔡陽)’ 이야기 역시 역사적 원형을 변형한 것이다. ‘항조귀한’ 이야기 전개과정에 《삼국연의》제28회를 보면 관우가 채양의 목을 베어 용맹을 보여주는 ‘참채양’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도 역사적 원형이 존재한다. 《삼국지·선주전(三國志·先主傳)》을 보면,

원소가 유비를 보내 병력을 거느리고 다시 여남으로 가게 하니 도적공도 등과 합류하여 그 병력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 조조는 채양을 보내어 그를 공격했는데, 채양은 유비에게 죽음을 당한다.
(紹遣先主將本兵復至汝南, 與賊龔都等合, 衆數千人. 曹公遣蔡陽擊之,

9) 陳壽, 《三國志》, 앞의 책, 357쪽.

10) 《平話》, 元 雜劇 《關雲長千里獨行》, 明 傳奇 《固城記》에 각각 비슷한 내용의 ‘三約’이 있다. 劉海燕, 앞의 책, 160쪽 참조.

爲先主所殺.)¹¹⁾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온 후 원소는 유비에게 군사를 이끌고 다시 여남을 되찾으라 하였고, 유비는 공도(龔都) 등과 수천 명을 규합하여 전투에 나선다. 이에 조조는 채양을 보내 대적하게 하였으나 유비에게 죽음을 당하고 만다.

이렇게 유비가 채양을 물리쳐 죽인 역사적 사건이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채양을 목 베는 ‘참채양’ 이야기가 되어 유비 · 관우 · 장비 세 사람의 고성취의(古城聚義) 전, 모이는 과정에서 관우와 장비가 대립하여 갈등하는 장면 속에 놓여진다. 채양의 출현이 관우를 의심하고 있던 장비에게 더 큰 오해를 낳자, 관우는 채양을 참하여 장비에게 본심을 분명히 밝히고 형제의 의를 확인시킨다. ‘항조귀한’ 이야기 전개의 위기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장비가 관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을 오히려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관우와 장비가 갈등하는 대목에 채양을 이용하여 이들의 갈등과 불신을 봉합하고 고성에서의 만남을 이루게 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원형을 소설의 이야기 전개에 잘 변형하여 활용한 것이라 하겠다.

또 《삼국연의》 제5회를 보면 간적 동탁(董卓)을 토벌하기 위해 나선 반동탁군이 동탁의 장수 화웅(華雄)의 용맹과 위세에 눌려 어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개 궁수의 신분엔 불과한 관우가 나서 위용을 떨치고 있던 적장 화웅을 술이 채 식기 전에 베어머리고 돌아오는 멋진 이야기가 있다.¹²⁾ 이 이야기 역시 역사적 원형이 있다. 《삼국지·손괴노전(三國志·孫破虜傳)》을 보면 사실 화웅을 죽인 것은 관우가 아니라 바로 손견(孫堅)이었다. 살펴보면

손견은 다시 병사들을 모아 양인에서 적과 싸워 동탁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동탁의 도독 화웅 등을 죽였다.

(堅復相收兵，合戰于陽人，大破卓軍，梟其都督華雄等.)¹³⁾

11) 陳壽, 《三國志》, 앞의 책, 590쪽.

12) 羅貫中, 《三國演義》(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1), 26쪽.

13) 陳壽, 《三國志》, 앞의 책, 735쪽.

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관우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해 그 공로의 주인공을 관우로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손건은 오히려 반대로 낭패를 당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동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손건이 화웅을 죽여 올린 전공을 관우가 술이 채 식기 전에 화웅을 베어버리는 엄청난 용맹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바꾸어 멋있게 서술한 것이다. 이 역시 역사적 원형을 전용하여 관우의 용맹 부각에 활용한 것이다.

(5) ‘항조귀한’의 이야기 속의 ‘천리독행’과 ‘오관참장’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방식의 역사적 원형 활용을 살펴보자. 역사 속의 기록을 보면 관우는 조조에게 투항한 이후 조조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을 보면,

조조는 관우를 사로잡아 돌아와 그를 편장군으로 삼고 매우 후하게 예우했다. …… 조조는 곧바로 표를 올려 관우를 한수정후로 봉했다. (曹公禽羽以歸, 拜為偏將軍, 禮之甚厚. …… 曹公即表封羽為漢壽亭侯.)¹⁴⁾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조조 진영 속에서의 그의 위치와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조조로부터 후한 예우를 받으며 아쉬울 것 없는 시절을 보내던 그가 유비에게로 돌아갔다는 것 또한 역사 속 사실이다.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을 보면,

관우는 조조가 내린 상을 모두 봉하고 고별의 편지를 써 놓고 원소 군대 속의 유비에게로 달려갔다. 조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뒤쫓으려고 했지만 조조가 말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주인이 있으니 뒤쫓지 마시오.” 관우는 유비를 따라 유표에게 기탁했다. (羽盡封其所賜, 拜書告辭, 而奔先主於袁軍. 左右欲追之, 曹公曰:“彼各為其主, 勿追也. 從先主就劉表”¹⁵⁾

14)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15)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634쪽.

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관우가 유비를 찾아 돌아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기록을 보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조조의 군영이며 종착점은 유비가 있는 곳이다. 이 짧은 몇 구절의 기록이 원형이 되어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작가에 의해 엄청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꾸며지게 된다. 산문 문학 중에 역사산문은 줄거리 없이 간단한 사실적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유비에게로 달려갔다는 역사 속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다보니 후대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창조해 만들어 내게 했다. 여기에서 ‘천리독행’ ‘오관참장’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던 것이다. 후대사람들은 이 공간에 근거해 많은 상상을 더하고 오랜 기간의 전해 내려온 민간 전설 등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야기들은 전체 이야기 줄거리에 흥미와 긴장감을 주는 서술일 뿐만 아니라 관우인물의 뛰어난 용맹과 남다른 의기 등을 부각시키는 이야기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그 발상은 얻었지만 역사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소설 속에 다른 작은 이야기들을 넣어 사실적인 이야기로 꾸며놓고 있다. 그래서 《삼국연의》 소설에서는 ‘천리독행’이라는 큰 줄거리 속에는 약간의 작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괘인봉금(掛印封金)’ 이야기가 그러하다. 이 또한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을 보면,

관우는 조조가 내린 상을 모두 봉하고 고별의 편지를 써 놓고 원소 군대 속의 유비에게로 달려갔다.

(羽盡封其所賜，拜書告辭，而奔先主於袁軍.)¹⁶⁾

라고 하는 짧은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삼국연의》 제26회에서는 이 짧은 기록에 근거해 관우가 조조로부터 받고 있던 물질적 풍요로움과 여유 있는 생활을 마다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멋있는 이야기로 꾸며져 묘사되고 있다. 동한 말엽의 그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관우의 역사 속 행동은 엄청난 모험이자 결단이기

16)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에 이에 대해 어떤 지지와 찬사를 보내도 욕됨이 없는 것이다. 소설의 작가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더 많은 구상과 수식을 더해 이야기를 멋있게 꾸며내어 관우를 지지함에 보태었던 것이다. 그래서 ‘괘인봉금’ 이야기를 꾸며내 관우의 명리에 대한 초연함과 조조에 대한 단호한 거절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의리 있고 품격 있는 인물로 만들고 있다.

(6) 역사적 원형을 유추하여 이야기를 지어 내기도 하였는데 ‘병촉달단(秉燭達旦)’ 이야기가 그러하다. 《삼국연의》 제25회의 ‘병촉달단’ 이야기는 역사 속 관우의 모습에 그 근거를 두고 유추되어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관우는 유가적 가치관을 지니고서 춘추를 가까이 한 문인적 풍모를 지닌 장수이었다.¹⁷⁾ 그런 그가 유가적 도덕관념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착안 하여 꾸며낸 이 이야기는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낸다. 촛불을 부여잡다는 뜻의 ‘병촉’ 구상은 중국 전통문화 속 남녀유별의 도덕적 예절 관념에서 나온다. 관우가 조조에게 요구한 ‘삼약’ 중의 두 번째 ‘상하를 막론하고 일절 문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나 조조가 내어 준 허창의 집을 형수들과 나누어 거주 한 ‘일택분양원(一宅分兩院)’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다. 특히 촛불을 부여잡고 밤새 책을 읽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관우의 절개를 말해주는 것으로, 역사 속에 나와 있는 명리에 초연한 그의 모습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만드는 대목으로 이를 통해 관우의 품격은 더 높아져 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만들어 ‘괘인봉금’ 이야기를 보완하고, ‘항조귀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차게 해주었는데, 제27회의 파릉교의 이별이야기와 ‘오관육참장(五關六斬將)’ 등의 이야기가 그러한 것이다. 이 중 조조와의 파릉교에서의 이별장면 이야기는 조조와의 단호한 결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구성이었고, ‘다섯 관문을 지나면서 여섯 장수를 목 벤 ’오관육참장’ 이야기 역시 조조와의 결별임과 동시에 ‘귀한’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 구성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항조귀한’ 이야기는 소설 《삼국연의》에서 꾸며진 이야기이지만, 관우라는 인물의 영웅전기와 같으며 그 원형은 과거의

17)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6쪽. "江表傳曰: 羽好左氏傳, 諷誦略皆上口."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소설에서 꾸며진 관우형상의 영웅적 모습은 축한중심적 관점에서 관우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이상적 인물로 창조해나가는 과정에서 정형화 되어진 것이다. 모든 즐거리가 관우의 단점은 보완하여 가려주고 장점은 부각시켜 미화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형상화되어진 이상적 관우형상은 관우 인격 정신의 조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대단한 예술적 매력과 감응력을 갖추고 있다.

이 '항조귀한' 이야기 외에도 부주의하여 형주를 잃었다는 '대의실형주(大意失荊州)' 이야기 역시 영웅전기적 서사 부분이다. 이 이야기는 제66회 '단도부회'에서 시작하여 제77회 맥성에서 패하는 부분까지이다. 관우의 영웅적 기개를 지닌 모습, 두려움 없이 충과 의로써 헌신하는 정신, 마지막 순간에도 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장면 등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영웅전기적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항조귀한' 이야기가 더욱 영웅전기적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관우형상의 영웅적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2) 신적인 모습

소설 《삼국연의》에서 관우 형상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모습이 있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작가는 우선적으로 역사 속 인물의 모습에 근거해 가장 완벽한 관우의 이상적 인격 형상을 창출해놓고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세계 속의 현실적 인물형상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적인 형상조성의 단서 또한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삼국연의》 소설 속에는 관우가 신이 되어 가는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즐거리를 허구로 구상해 넣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신앙에서의 귀신같기도 하고 종교영역에서의 신 같기도 한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적인 모습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암시하고 묘사해주어 후일 관우를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상 관우숭배의 한 단서가 제공된 대목인 것이다. 물론 소설이 태동하기 전부터 관우는 민

간전설에서 신격화 되고 있었지만, 이 소설이 나와서 세상에 영향을 떨침으로 해서 그 신격화를 가속시켜 주었던 것이다. 소설 속에서 관우 신격화의 단서가 되는 신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보정(普淨) 스님과의 인연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와의 만남을 먼저 살펴보자. 신적인 모습이란 인간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개념이기에 우선 인간세계를 벗어나야 그 존재가 가능하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소설에서 관우가 인간세상을 떠나 신이 되는 모습과 연관된 인물이 바로 보정(普淨) 스님이다. 《삼국연의》 제27회에서 보정과 관우는 사수관(汜水關)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과거의 인연을 얘기하며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듯 묘한 느낌을 준다. 보정은 진국사(鎭國寺)의 승려로 관우와 동향사람이다. 그들의 대화는 간단하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살펴보면,

“장군께서는 포동을 떠난 지 몇 해나 되었습니까?” 관공이 말하기를 : “거의 20년이나 되었습니다.” 보정이 말하길: “빈승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관공이 말하길 :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정이 말하길 : “빈승의 집과 장군의 집은 단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 보정스님에게 감사해하며 말하길 “만약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놈들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보정이 말하길 : “빈승도 이곳에 있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의발을 수습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떠돌아다니렵니다. 훗날 아마 다시 뵈 기회가 있겠지요. 장군께서는 부디保重하십시오.”
(“將軍離浦東幾年矣?” 關公曰: “將及二十年矣.” 普淨曰: “還認得貧僧否?” 公曰: “離鄉多年, 不能相識.” 普淨曰: “貧僧家與將軍家只隔一條河.” …… 謝普淨曰: “若非吾師, 已被此賊害矣.” 普淨曰: “貧僧此處難容, 收拾衣鉢, 亦往他處雲游也. 後會有機, 將軍保重.”)¹⁸⁾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섯 관문을 지나며 여섯 장수를 베는 대목에서 나온다. 세 번째 관문 사수관에서 이처럼 관우는 갑자기 등장한 동향인 보정과 뜻

18)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140~141쪽.

밖의 만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보정의 도움에 의해 변희(卞喜)의 계락을 피해 그를 베어버리고 사수관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보정은 이별을 하면서 아마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여운의 말을 남긴다. 이 말이 바로 후일 관우가 죽은 후 옥천산(玉泉山)에서의 재회를 암시한 것이다. 《삼국연의》 제77회를 보면,

관공의 혼백은 흩어지지 않고 유유히 떠올라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은 형문주 당양현에 있는 옥천산이었다. 그 산위에 한 노승이 있었는데 범명은 보정이었다. …… 3경이 지나 보정이 암자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별안간 공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내 머리를 돌려다오!” …… 보정은 그가 관공임을 알아보았다. (關公一魂不散, 蕩蕩悠悠, 直至一處: 乃荊門州當陽縣一座山, 名爲玉泉山. 山上有一老僧, 法名普淨. …… 三更已後, 普淨正在庵中默坐, 忽聞空中有人大呼曰: “還我頭來!” …… 普淨認得是關公.)¹⁹⁾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관우와 보정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관우 현성 대목이 후일 관우숭배의 근원적 한 출발점이 된다. 옥천산에서 보정스님은 종교적 힘을 발휘하여 관우를 신으로 승화시켜 버린다. 여기에서부터 현실을 떠난 모습의 관우는 이후 신적인 모습으로 소설의 주요 줄거리 대목마다 나타나 그 영험함을 보여주며 점차 점차 그 형상이 신격화되어져 간다.

(2) 관우는 신적인 모습으로 인과응보의 응징에 나타난다. 신으로 승화되어진 관우의 신적인 모습은 먼저 그를 해친 적들에게 나타나 응분의 보복을 가하며 그 위력을 발휘한다. 《삼국연의》 제77회에 관우가 신이 되어 나타나 손권을 욕하는 대목이 있다. 살펴보면,

손권은 친히 술을 따라 여몽에게 주었다. 여몽이 술을 받아서 마시려다 별안간 잔을 땅에 내던지고 한 손으로 손권의 먹살을 쥐며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욕하며 말하길 : “이 눈깔 푸르고 수염 붉은 쥐새끼 같은 놈아! 나를 알겠느냐?” …… “내가 황건적을 무찌른 후로 천하를

19)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7쪽.

횡행하기 30여 년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네 놈의 간계에 빠지고 말았으니 내가 살아서 네놈의 육신을 씹지 못한다면 죽어서 네놈의 혼을 쫓아다닐 테다. 나는 한수정후 관운장이다.”

(親酌酒賜呂蒙. 呂蒙接酒欲飲, 忽然擲杯于地, 一手揪住孫權, 厲聲大罵曰: “碧眼小兒! 紫髯鼠輩! 還識我否?” …… “我自破黃巾以來, 縱橫天下三十餘年, 今被汝一旦以奸計圖我, 我生不能啖汝之肉, 死當追呂賊之魂! 我乃漢壽亭侯關雲長也.”²⁰⁾

라도 서술되어 있다. 관우가 여몽의 몸을 빌려 나타나 자신을 죽인 원수 손권을 혼나게 해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여몽은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들어 버린다. 관우의 신적 위력이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여몽의 목숨을 앗아 적을 응징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계속하여 또 다른 원수 조조를 응징함에도 그 신적인 모습은 위력을 보여준다. 《삼국연의》 제77회를 보면,

사자가 목갑을 바치자 조조가 받아 뚜껑을 열고 보니 관공의 얼굴이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조조가 웃으며 말하길 : “운장공, 그간 별고 없으셨소?” 말을 마치자마자 관공이 입을 벌리고 눈알을 굴리며 수염과 머리털을 몽땅 곤두세우니, 조조가 놀라서 가무러쳤다.

(呈上木匣, 操開匣視之, 見關公面如平日. 操笑曰: “雲長公別來無恙!” 言未訖, 只見關公口開目動, 鬚髮皆長, 操驚倒.)²¹⁾

라고 서술되어 있다. 동오는 관우를 참수한 후 유비의 보복이 두려워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내게 된다. 이에 조조는 기쁜 마음으로 관을 열어 보게 되는데 관우가 인간을 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이처럼 혼줄을 빼놓은 것이다. 관우는 앞서 손권을 혼내더니 조조 앞에 나타나 조조를 실신하게 만들어 결국 두 원수를 모두 응징하여 버린다. 실로 인간의 영역과는 다른 관우의 신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관우는 신적인 모습을 통해 형님 유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관우의 신적인 모습은 형님 유비의 꿈에 나타나 그 억울한 죽음

20)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8쪽.

21)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9쪽.

을 알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삼국연의》 제77회를 보면,

별안간 방안에 찬바람이 일며 등불이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켜지기에, 현덕이 고개를 들어보니 등불 아래 한사람이 서 있었다. 현덕이 묻기를 : “너가 누구이기에 이 깊은 밤중에 내 내실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다. 현덕이 의아해 일어나 자세히 보니 그는 관공인데 등불 그림자 아래 어둠 속을 왔다 갔다 하며 자꾸 몸을 피했다. 현덕이 말하길: “아우, 그간 별고 없었나? 깊은 밤중에 여기를 왔으니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겠네.” …… 관공이 울며 말하길: “원컨대 형님께서 군사를 일으켜 아우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 현덕이 놀라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고 때는 3경이었다.
(就室中起一陣冷風, 燈滅復明, 擡頭見一人立于燈下. 玄德問曰: “汝何人, 夤夜至吾內室?” 其人不答. 玄德疑怪, 自起視之, 乃是關公, 于燈影下往來躲避. 玄德曰: “賢弟別來無恙! 夜深至此, 必有大故. …… 關公泣告曰: ”愿兄起兵, 以雪弟恨!“ …… 玄德忽然驚覺, 乃是一夢: 時正三鼓.²²⁾

라고 서술되어 있다. 관우가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후 유비의 꿈에 나타난 것이다. 그 혼령이 그의 죽음을 알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유비에게 군사를 일으켜 아우의 한을 풀어 달라 한 것이다. 이 꿈은 실제로 후일 동오와의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의 신령스런 영험성은 효력을 발휘한 셈이 된다. 이후 관우는 다시 한 번 유비의 꿈에 나타나는데, 유비가 동오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백제성으로 돌아와 그 후유증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삼국연의》 제87회를 살펴보면,

홀연히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 등불이 꺼질 듯 깜박거리다 다시 밝아졌다. 등불 그림자 아래에 두 사람이 시립해 있는 것이 보였다. …… 선주가 일어나 살펴보니 좌편은 운장이요 우편은 익덕이었다. …… “신 등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 형님과 아우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선주가 그들을 붙잡고 목을 놓아 울었다. 문득 놀라 깨어나 보니 두 아우가 보이질 않았다.
(忽然陰風驟起, 將燈吹搖, 滅而復明. 只見燈影之下, 二人侍立. …… 先主起而視之, 上首乃雲長, 下首乃翼德也. …… “臣等非人, 乃鬼也. ……

22)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9쪽.

哥哥與兄弟聚會不遠矣.”先主扯定大哭.忽然驚覺,二弟不見.)²³⁾

라고 서술되어 있다. 관우와 장비가 유비의 꿈에 함께 나타나 이미 귀신이 되었음을 알리며 곧 함께 모이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 두 번의 꿈에서 볼 때, 관우는 현실을 떠난 상황에서도 신적인 모습을 통해 유비, 장비와 현재와 내세를 뛰어넘은 깊은 형제의 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아직은 인간적 모습이 짙게 깔려있어 완전한 신으로서의 성격형상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모습과 신적인 모습이 중첩되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4) 관우는 신적인 모습으로서도 변함없이 자식을 보호하고 있다. 이 역시 인간적 모습을 아직 탈피하지 못한 것인데 살펴보면 신분만 신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 아직은 인간적 모습이 더 강하고 절실히 보이는 대목이다. 관우는 현실을 떠났음에도 신적인 모습을 통해 두 번씩이나 나타나 아들 관홍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여준다. 《삼국연의》 제83회를 보면, 관우는 그의 신상(神像)을 받들고 있는 어느 한 산간의 인가에서 나타나 아들 관홍이 반장(潘璋)을 참하고 청룡언월도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데 살펴보면,

관홍이 그를 보고는 곧 칼을 손에 들며 큰 소리로 꾸짖으며 이르길 :
“네 이놈, 도망칠 생각마라!” 반장이 몸을 돌려 나가려 하였다. 바로 문 앞에서 한 사람이 무르익은 대추 같은 안색, 봉의 눈, 누에 눈썹에 세 가닥의 아름다운 수염을 펴리며 녹색 전포, 황금 투구차림으로 검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반장은 관공이 현성한 것을 보자 크게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혼비백산하였다. 다시 몸을 돌려서 피하려 했으나, 이미 관홍의 손이 칼을 들어 올리자 땅위에 쓰러졌다.
“關興見了, 按劍大喝曰: “歹賊休走!” 璋回身便出. 忽門外一人, 面如重棗, 丹鳳眼, 臥蠶眉, 飄三縷美髯, 綠袍金鎧, 按劍而入. 璋見是關公顯聖, 大叫一聲, 神魂驚散: 欲待轉身, 早被關興手起劍落, 斬于地上.”²⁴⁾

23)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426쪽.

24)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415쪽.

라고 서술되어 있다. 죽어서 까지도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자식을 도와주는 부모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관우의 인격과 신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 《삼국연의》 제94회를 보면, 관홍이 강족의 장수 월길원수(越吉元帥)와의 싸움에서 물속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관우가 신이 되어 나타나 그를 구해준다. 살펴보면,

관홍은 스스로 저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당연히 만나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달려 뒤쫓아 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운무 속에 희미하게 한 대장이 있는데 그의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 빛이요, 눈썹은 누운 누에 같고 초록 전포에 황금 투구를 썼고, 손에 청룡도를 들고 적토마에 앉아서 손으로 아름다운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다. 관홍은 그가 분명 자기 부친 관공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문득 관공이 손으로 동남쪽을 가리키며 말하길 : “내 아들이 빨리 이 길을 향해 가거라.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네 영채로 돌아가게 해주마.”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興自思此人救我性命，當與相見，遂拍馬趕來。看看至近，只見雲霧之中，隱隱有一大將，面如重棗，眉若臥蠶，綠袍金鎧，提青龍刀，騎赤兔馬，手綽美髯。分明認得是父親關公。興大驚。忽見關公以手望東南之曰：“吾兒可速望此路去。吾當護汝歸寨。”言訖不見。²⁵⁾

라고 서술되어 있다. 관우가 역시 그의 아들 관홍을 긴박한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간 세계를 떠났음에도 인간으로서의 가치관과 모습을 잃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전지전능하고 초연한 신적인 모습보단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잘 느껴볼 수 있다.

(5) 관우의 신적인 모습은 한편으로 전쟁신으로서의 신격도 보여주고 있다. 관우는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적인 모습으로 전투의 상황에 두 번이나 나타난 셈이다. 비록 아들 관홍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25)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477쪽.

결과적으로는 분명 전쟁터에서 승리를 도와주는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이 되어 전쟁터에 나타난 관우의 엄숙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는 마치 살아생전의 모습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전쟁신의 모습은 관우의 가장 기본적인 신성중의 하나이다. 후세에 나타난 관우의 신적인 모습의 많은 부분은 호국안민과 연관이 있다. 물론 관우는 소설이 태동되기 전 송대 민간전설에서부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던 치우(蚩尤)를 관우신이 물리쳐 세상을 보호했다는 전설²⁶⁾이 있을 정도로 이미 전쟁신으로 신격이 보여 지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소설이 유행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신으로 모셔지게 된다. 이후 민간인은 물론이고 문인들 역시 관우의 전쟁신으로서의 신격을 그들의 시가를 통해 인정하였다.²⁷⁾

이상에서 살펴 본 소설 속 관우형상의 신적인 모습은 역사적 원형이나 근거는 없다. 이는 분명 민간에서의 관우에 대한 인기와 그에 따른 민간문화 영향과 민간인들의 종교적 욕구와 바람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회 종교 문화적 분위기에 합리적인 허구를 더하여 《삼국연의》에 관우의 신적인 모습이 반영되어 녹아든 것이다. 그래서 관우는 사람과 신의 신분과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역사연의소설 《삼국연의》 속에 등장하게 된다. 결국 이리하여 소설 속 관우형상은 인격형상에 신적인 모습이 겹쳐져 있게 되는 것이다. 관우라는 인물은 소설 속에서 평생토록 의를 잃지 않고 실천한 도덕적 면에서 가장 숭고하고 완벽한 이상적인 인물로 예술성을 갖추어 그려져 있기에 이런 다중적 의미의 소설 속 관우형상이 현실과 초현실의 혼재 속에서도 독자들에게 황당무계한 혼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전통사회 도덕문화에 잘 부합하며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관우형상의 의미를 넓히는 기초가 되어 이후

26) 候學金 主編, 〈關公戰蚩尤〉, 《解州關帝廟》(解州: 解州關帝廟文物保管所, 1988), 189~191쪽 참조.

27) 明 郭子章 〈紀夢〉: “夜夢壯繆侯, 車騎儼相過. 倒屣延之八, 席分賓主坐. 論賊無足虞, 秕糠易揚簸.” 《關帝事迹徵信編》卷二十九〈詩詞〉, 劉海燕, 앞의 책, 145쪽 참조. 明 張恒 〈平泉紀異〉: “君不見, 赫赫英靈如常在, 佑國誅賊顯台海. … … 又不見, 小子患瘤危篤時, 夢中常得帝扶持.” 줄고 〈文人詩歌에 반영된 關羽형상〉, 《中國研究》(2013.3), 12~13쪽 참조.

중국 민족 전통문화를 수용하며 관우형상이 더 큰 다중적 모습을 지닌 신격형상으로 가게 되는 토대가 된다. 이런 현상은 중국 전통사회 문화의 여러 요소가 바탕이 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기에 후일 자연스레 관우숭배문화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연의》 속의 다중적 의미의 관우형상은 곧 과거에 근거한 수준 높은 인격형상의 완성을 통해 미래의 신격형상으로의 승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관우숭배문화 속에서 지니는 《삼국연의》 속 관우형상은 과거 인간 관우에 대한 정리와 완성이며 동시에 미래 신적 관우의 시작이라 하겠다.

3. 맺음말

역사 속 인물 관우의 실체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재적 실재를 좀 더 발전되어진 문화가 다른 관점과 언어 표현으로 그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연의》의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요인이 관우형상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허구와 진실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역사와 문학적 서사의 절묘한 만남은 역사 인물에 대한 예술적 매력을 더욱 증가시켜 주었다.

이렇게 변화되어 창출되어진 《삼국연의》 속의 관우형상은 분명 영웅적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 모습은 형식적 면에서 영웅전기적 구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영웅전기적 서술을 통해 창출되어진 영웅적 관우형상은 중국민족의 보편적 정서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우형상 속의 신적인 모습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신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모든 중국 사회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과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결국 소설 《삼국연의》 속 관우형상은 여러 면에서 중국 민족적 정서와 전통사회 도덕 문화에 잘 부합되는 특징을 두루 지니었기에 관우숭배문화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관우숭배문화에서 《

삼국연의》 속 관우형상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관우의 과거 역사 속의 행적에 근거하여 영웅적 모습을 구현하고, 미래 신격화를 위한 신적인 모습을 체현시켜 후일 관우숭배문화의 큰 바탕이 되게 한 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羅貫中, 《三國演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1
種兆華, 《元刊全相平話五種校注》, 成都: 巴蜀書社, 1989
정원기 역주, 《三國志平話》, 서울: 청양, 2000
陳壽撰 裴松之注, 《三國志》(上·下), 長沙: 岳麓書社, 2006
陳壽, 김원중 역, 《삼국지》, 민음사, 2010
朱一玄 劉毓忱 編, 《三國演義資料彙編》,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83
張志江, 《關公》,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8
劉海燕, 《從民間到經典》,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4
宋萬忠 武建華 標點注釋, 《解梁關帝誌》,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92
于朝貴, 《三國演義探論》,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1
胡小偉, 《關公崇拜溯源》,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2009
蔡東洲 文廷海, 《關羽崇拜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1
馬書田 馬書俠, 《全像關公》, 南昌: 江西美術出版社, 2008
黎東方, 《細說三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7
馬昌儀 編選, 《關公傳說》,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8
朱正明, 《關公聖迹》,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04
劉錫誠 等著, 《關公信仰》, 北京: 學苑出版社, 1993
남덕현, <文人詩歌에 반영된 關羽형상>, 《中國研究》, 2013.3

<中文提要>

目前关羽信仰和关羽崇拜已经成为中国社会的一种特殊文化现象。关羽形象随着三国历史而走进中国社会, 他的故事也在悠久的中国历史和广范的

地区上流传了将近两千年。随着时代的推移，关羽形象也有了变化。在关羽形象演变过程中，长篇历史演义小说《三国演义》所塑造的历史人物关羽完成了其形象的文学定型。本论文考察《三国演义》所塑造的关羽人物形象的特点，以探讨了在关羽崇拜文化现象上其特点所反映的价值和意味。

關鍵詞： 關羽 關羽形象 《三國演義》 關羽崇拜 關羽崇拜文化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